

신종플루의 위협의 과장



외국어학부
영어학과
정현희

신종플루란 무엇인가?

- A형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변이를 일으켜 생긴 새로운 바이러스 독감
- 멕시코에서부터 시작하게 된 바이러스 독감
- 전세계적으로 사람들에게 공포를 줬던 전염병

신종플루에 대한 WHO의 대책?

- 제약회사와 함께 '신종플루 대유행'을 실시
 - 사람들에게 백신접종을 실시하게 함
 - 사람들에게 '타미플루'라는 화학 항바이러스제를 투여하게 함
 - 외국으로 백신을 팔기 시작함

WHO의

‘신종플루 대유행’은

사람들에게

오히려 더 겁을 줄뿐

WHO와 제약회사는

돈에 대한 이익만 생각을 했다?

사례 1

나라	재고물량 신청량	결과
프랑스	1명에 2회씩 9천 400만 구입	5000만개 주문 취소
스위스	8천400만 구입	450만회분을 돌려주기로 결정
독일	5천만 회분	5천만 회분을 절반으로 줄이기로 결정

백신을 구입한 외국에서는, 백신 접종률이 생각보다 낮아서 재고물량이 쌓이게 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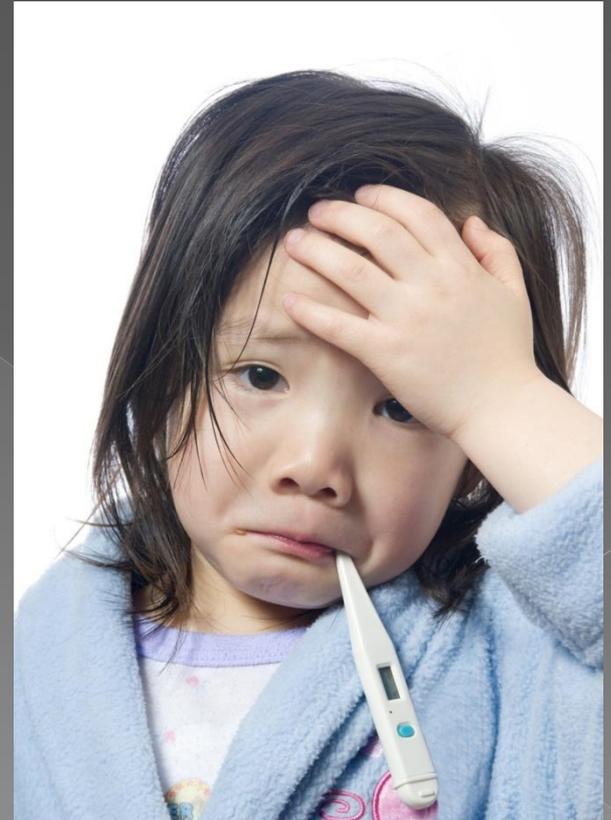
사례 2

년/주	사망자수
2009년/37주	1
2009년/38주	3
2009년/39주	3
2009년/40주	0
2009년/41주	3
2009년/42주	5
2009년/43주	7
2009년/44주	24
2009년/45주	25
2009년/46주	25
2009년/47주	16

작년에 한 국회
의원이 전 세
계적으로 신
종플루로 사
망할 사람들
은 약 20,000
명이 될 것이
라고 하였지
만 실제로는
300명도 되지
않았다.

사례 3

- 신종플루가 일반적인 독감보다 더 약하고 취사율이 낮다



사례 4

- WHO는 타미플루를 만든 제약회사와 그 외의 제약회사에게 돈을 지불하였다
- WHO는 WHO의 위원회 위원 중 신종플루를 결정한 몇몇 사람들에게 돈을 지불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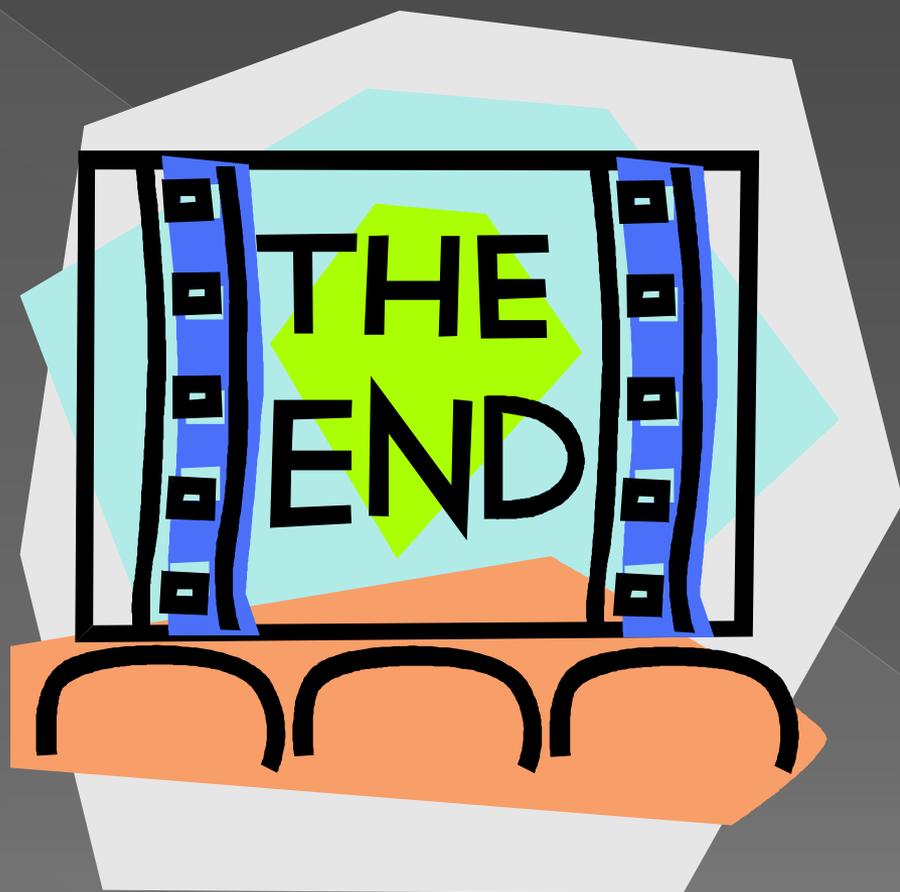
사례 5

- 사람들에게 타미플루라는 화학 항바이러스를 투여하고 백신접종을 실시함으로써 부작용과 사망의 결과가 일어나게 하였다.



WHO와 제약회사는, 신종플루라는 병이 생기고, 점점 많은 사람들이 사망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난 후에 백신접종을 시키고 항바이러스를 투여하자는 결정과 함께 이것으로 자기 자신들이 이익을 벌려고 생각을 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